

●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루카복음 10장 31~34절)

투명 인간이 되게 하는 무관심은 무서운 죄다

무관심은 서로를 단절시키는 마음의 벽이다. 단절된 상태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그림 속의 떡과 같다.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곁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배려하라. 둘째, 상대를 높여 주어라. 셋째, 먼저 다가가라. 무관심은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